

이슈

2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3147호

내가 왜 떴게?

“인형 사게 만원만 대출해주세요”



이윤미와 딸

●이윤미, 딸 실수 112 : 주영훈의 아내이자 배우인 이윤미가 어린 딸의 에피소드를 전했다. ‘우리 라엘이’가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실수로 긴급버튼을 눌러 112에 자동으로 전화가 걸렸다는 것. ‘여보세요’ 소리에 놀란 라엘이는 설상가상 ‘까악!’ 비명소리까지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는데, 이윤미는 재차 걸려온 경찰관의 전화를 받아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결국 웃으며 사건(?)은 마무리. 엄마 팬들은 “우리 아이도 그랬다”며 공감했다. 우리 라엘이, 좀 더 크면 대출상담 전화도 척척 댄겠네?

사과 없는 세상



박명수

●박명수, 뒤편 캐리어 : 방송인 박명수가 라디오 방송에서 ‘사과’를 주제로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던 중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공항에서 짐이 사라져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캐리어인줄 알고 끌고 가 버렸다는 것. 1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캐리어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실수한 사람이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아 씩 좋지 않은 기분으로 귀가했다는 얘기였다. 갈수록 사과가 사라지는 시대. 누군가 “사과 없으면 배 먹으면 되지”라고 했다. 맞을래?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안재현·구혜선, 결혼 3년만에 파경 위기, 그들에게 무슨 일이…

“협의 이혼” “아니다” 또 다른 갈등 예고

구혜선 “남편이 이혼 원한다” SNS 소속사 “협의 이혼” 보도자료 배포
구혜선 “상의되지 않은 내용” 반박
주변에선 “성격 차이로 골이 깊었다”

2016년 5월21일 ‘부부의 날’에 결혼해 화제를 모은 연기자 안재현(32)·구혜선(35) 커플이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아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혼에 관한 두 사람의 입장이 전혀 달라 부부간 불화에 이은 또 다른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평소 잉꼬부부라 소문났던 이들이 처한 갑작스러운 상황과 그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파경 위기는 구혜선이 18일 새벽 자신의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은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로부터 반나절 만인 오후 1시경 이들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구혜선이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9월경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며 “안재현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까지 밝혔다.

소속사는 구혜선이 언론 배포 목적으로 미리 작성해놓은 이혼 관련 입장문



결혼 3년 만에 이혼 위기를 맞은 안재현(오른쪽)·구혜선 커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속사정에 시선이 쏠린다. 사진은 올해 5월 한 의류브랜드 행사에 참석한 두 사람의 모습.

초안도 첨부했다. 입장문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이혼조정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구혜선은 HB엔터 측의 ‘이혼 발표’ 약 30분 후 SNS에 “(안재현과 소

속사 측이 나를)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며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라고 반박했다. 그가 썼다고 소속사 측이 밝힌 입장문 초안 내용과도 전혀 다른 입장이었

다. 이와 함께 이혼의 과정을 둘러싸고 안재현과 과거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도 잇따라 공개한 뒤 삭제했다.

이에 그 과정과 배경에 연에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성격의 차이로 골이 깊었으며, 끝내 이를 좁히지 못하고 2주 전인 이달 초 합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안재현이 11월 방송하는 MBC 드라마 ‘하차있는 인간들’ 촬영으로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용인 신흠집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거처를 옮겨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구혜선과 소속사의 관계도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구혜선은 이날 SNS 글에서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메시지)을 읽은 것. 이로써 부부와 회사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하면 계약 해지해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안재현에 전달한 내용도 공개했다. 18일 소속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혜선의 프로필 사진을 삭제했다. 이 같은 상황은 소속사와 분쟁 등 또 다른 마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구혜선은 앞서 올해 6월 안재현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한편 18일 밤 구혜선의 출연분을 방송하려던 SBS ‘미운 우리 새끼’ 측은 이날 오후 “사전녹화로 제작이 완료된 분량을 일부 수정, 편성했다”고 밝힌 관련 내용은 방송되지 않았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우스꽝스러운 광고로 조롱당한 호날두

쇼핑 플랫폼 ‘쇼피 싱가포르’ 출연
민망한 실정과 춤에 언론·팬 경악
영국 매체 “최악의 축구광고” 혹평



호날두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찍은 광고에 대해 언론과 팬들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호날두는 최근 싱가포르 쇼핑 플랫폼인 ‘쇼피 싱가포르’ 광고 모델로 나섰다. 16일 공개된 광고에서 그는 프리킥을 골을 넣은 뒤 자신의 상징인 ‘호우 세리머니’를 펼친다. 관중들은 호날두에게 환호를 보내는 대신 각자의 휴대전화로 쇼피 사이트에 접속한다.

환호가 없는 관중들의 반응에 호날두는 머리를 굴적다가 주심에게 경고를 받은 뒤 ‘쇼피’를 외치면서 축구유니폼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좌우로 팔과 몸을 흔드는 민망한 춤을 춘다. 광고 배경음악은 동요 ‘상어가죽’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 두고 해외축구전문매체인 ‘90MIN’은 “이 콘텐츠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접근하라”고 경고하며 “호날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악몽 같은 광고에 호날두가 출연한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영국 매체인 ‘토크스포츠’는 “역대 최악의 축구 광고 중 하나”라고 혹평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역시 “광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축구 팬들은 경악한 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영상”이라고 비난했다. 호날두가 출연한 이 광고는 유튜브에서 ‘shopee’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단 1초도 뛰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국내 축구팬들은 이번 광고에 더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류현진 2홈런·4실점…너무 안풀린 하루

〈애틀랜타전〉

3회 심판 아쉬운 볼 판정 후 2실점
6회 ML 데뷔 첫 백투백 홈런 허용
다음은 NY…사이영상 레이스 험난

‘괴물’ 류현진(32·LA 다저스)의 후반기 순항행로에 제동이 걸렸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레이스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선트러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전에 선발등판, 5.2이닝 6안타(2홈런) 5삼진 1볼넷 4실점을 기록했다. 다저스가 3-4로 패하며 류현진은 시즌 13승 대신 3패째를 당했다. 평균자책점(ERA)은 종전 1.45에서 1.64까지 뛰었다.

3회 심판 판정의 아쉬움이 겹치며 먼저 2실점했다. 이내 평정을 찾는 듯했지만 6회 조쉬 도널드슨과 애덤 듀발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며 6회를 채우지 못했다. 연속타자 파홈런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

여러 모로 ‘쿠어스필드 악몽’이 떠오르는 하루였다. 류현진은 6월 29일 콜로라도 원정에서 4이닝 9피안타 7실점으로 고전했다.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콜로라도의 홈구장 쿠어스필드에서 홈런만 3개를 내주는 등 무너졌고, 1.27이던 ERA가 1.83까지 뛰었다. 류현진이 홈런을 허용한 것도, 패전 멍에를 떠안은 것도 6월 29일 이후 애틀랜타전이 처음이었다.

‘MLB닷컴’은 “사이영상 경쟁에서 가장 앞서있는 류현진이 홈런에 당했다”고 평했다. 류현진은 “6회 연속타자 파홈런 때 변화구를 던졌다면 어땠을까 싶다. 느린 변화구를 던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애틀랜타를 다시



류현진

만나면 오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사이 사이영상 레이스 경쟁자들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은 캔자스시티전에서 7이닝 1실점 호투로 시즌 8승(7패)째를 거뒀다. ERA는 2.61까지 떨어졌다.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맥스 슈어저(워싱턴)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 피칭을 소화했다. 등 부상으로 7월 27일 전력에서 이탈한 그는 4이닝 동안 64구를 던지며 이상이 없음을 증명했다.

로테이션 대로면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24일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가 될 전망이다.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전체 팀 홈런 2위, OPS(출루율+장타율) 3위, 득점 1위에 빛나는 막강 타선의 팀이다. 류현진으로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정의 연속인 셈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872회 당첨번호 (추첨일: 2019년 8월 17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4	30	32	33	43
29					
1등 총 당첨금 2,012,200,324원					

*1등 총 당첨금 1,262,705,579원

등위 및 당첨개수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6	1,262,705,579원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46	73,200,324원
3등	5개 숫자 일치	2,018	1,668,591원
4등	4개 숫자 일치	99,681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715,898	5,000원

*당첨금 1원당 1원당 당첨금에 기증합니다. (내국 공제 2%)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j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 의 사 항 · 복권은 만일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복권은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난회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센터 080-800-0501 www.clear.jhlottery.co.kr